



[산업] LG, 임원 인사 단행 권봉석 LG전자 사장 COO 부회장 승진 08



Economy

코스피	2980.27 (-14.02)	코스닥	1015.66 (-4.47)
금리 (2년)	1.933 (-0.080)	환율 (USD)	1190.20 (+3.70) (25일)

m-커버스토리

최고금리 인하·간편결제 확산 수수료 내리고 DSR 적용까지

위기의 카드사

신용카드 이용 규모 0.3% 감소 간편결제서비스는 12.5% 증가

올해 역대급 실적을 낸 카드업계가 울상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간편결제 확산에 이어 연말 내 가맹점수수료 인하나 가시화하면서다. 내년부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함에 따라 카드론 취급액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 법정 최고금리 인하·간편결제 확산 '쌍끌이 압박'

지난 7월 연 20%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는 카드사의 이자수익에 영향을 미쳤다. 저신용자 대출상품에서 마진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간편결제와의 전쟁은 장기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결제 확산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은 뒷걸음친 반면 간편결제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중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일평균 이용규모는 1조9610억원으로 전년 대비 0.3% 줄었다. 과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감소했던 적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와 2002년 카드대란 사태 이후인 2003년, 2004년(-26.8%) 세 차례 뿐이다.

반면 올해 상반기 중 간편결제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실적은 559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2.5% 증가했다. 불과 반기 만에 5000억원 규모를 뛰어넘은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4면에 계속>

/권소안 기자 think@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및 실질 수수료율 비교>

/업계 취합

연매출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실질 수수료율
연매출 3억원 미만	0.8%	-0.5%
연매출 3~5억원	1.3%	0%
연매출 5~10억원	1.4%	0.1~0.4%

“메타버스는 ‘글로벌 패러다임’ MZ 세대가 진군의 나팔 불어”

메트로경제 '뉴테크놀로지 포럼'

코로나發 메타버스 가속화 페이스북, 100조 자금 투입 BMW, 버추얼 팩토리 전환 등 글로벌 패러다임 진행 초기

“확장현실(XR)은 만들어진 세계에서 참여자가 플레이를 하는 데 반해 메타버스는 창조를 하는 것이다. 또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가 분리돼 있는 게 XR이라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연결돼 있는 것이 메타버스다”

<관련기사 L7·L8면>

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 원장은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지난 24일 개최한 '2021 뉴테크놀로지 포럼'에서 최근 흥동되는 개념인 XR과 메타버스의 차이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현 원장은 “코로나는 질병적으로 고통을 줬지만 사회, 제도, 규제, 인식에 대해 빠른 시간 내 변화를 줬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메타버스는 3~4년이 더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이 오픈러스를 인수하면서 가상세계로 가는 미래는 감지됐지만, 지난 10월 28일 개발자 행사에



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 원장이 24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1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서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꿨는데 이는 회사의 미래를 건 생존전략이었다”며 “페이스북은 당장 메타버스에 1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현 원장은 “메타버스는 MMOCPI라며 MMORPG가 동시에 다른 곳에서 접속을 해서 롤플레이 게임을 하는 것인데, 여러 사용자(Massively Multiplayer Online)가 참여하는 가상(Cyber)과 물리(Physical)의 통합(Integration) 세계를 의미한다”며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통합되는 창조의 세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1980년대에서 2010년생을 포함하는 MZ 세대는 정보 채택속도가 매우 빠르고 유튜브를 보기보다 생산하려 한다”며 “MZ세대가 메타버스로 진군의 나팔을 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원장은 “메타버스는 패러다임으로, 지금은 패러다임이 진행되는 초기”라며 “여기서 만들어진 서비스는 글로벌로 나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메타버스 패러다임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또 어떻게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메타버스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세상으로, 실체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팀장은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경계 없이 사람들이 모여 상호 작용을 하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디지털 우주”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최근 조사에서 65%의 사람들이 메타버스로 출근을 원하고 연봉을 3000만원 적게 줘도 평생 재택근무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샌드박스 and 제페토는 경쟁자지만 협력해 생태계를 키우고 있으며, BMW는 전 세계 공장 31개를 모두 버추얼 팩토리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사람도 조직도... 롯데 '파격변신'

신임 임원에 '非롯데 출신' 선임 쇼핑대표에 홈플러스 출신 김상현 GFR대표에 신세계 출신 정준호



신으로 1987년 삼성그룹 공채 입사 후 20년 이상 신세계그룹에서 일했다. 롯데쇼핑이 2018년 패션 사업 강화를 위해 영입한 인물이다.

안세진 놀부 대표는 LG그룹, AT커니, 모건스탠리PE 등을 거친 인물로, 롯데 출신이 아닌 점과 더불어 호텔과 무관한 업무 경력을 가져 눈길을 끈다.

강희태 유통BU장 겸 롯데쇼핑 대표는 자진사퇴했다. 이봉철 호텔&서비스BU장도 교체됐다.

한편, 롯데는 이번에 BU(비즈니스 유닛) 체제도 폐지하고 유통·식품·화학·호텔 등 4개 산업군 HQ(헤드쿼터)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롯데가 BU를 없애는 것은 2017년 2월 조직개편 후 약 5년 만이다.

/김서현 기자 seoh@

2022년 롯데 신임임원에 비(非)롯데 출신 인사들이 선임되면서 내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롯데그룹은 25일 계열사별 이사회를 열고 2022년 정기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롯데그룹이 그간 고수하던 '순혈주의'를 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구조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관련기사 3면>

롯데쇼핑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된 김상현 전 홈플러스 대표(사진)는 P&G에서 30년 간 몸 담았다. 김 대표는 P&G의 평사원으로 시작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사장, 미국 본사 신규사업담당 부사장까지 지내며 P&G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아시아인이다.

정준호 롯데 GFR대표는 신세계 출

'제로금리' 시대 끝났다... 연 1.0%로 인상

한은, 기준금리 0.25%p 올려 가계부채 급증 등 인상 불가피

'제로금리 시대'가 1년 8개월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연 1.0%로 인상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75%에서 1.0%로 0.25%포인트(p) 올렸다. <관련기사 3면>

한은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과 5월 기준금리를 연 0.5%p, 0.25%p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기준 기준금리는 0.75%로 제로금리 시대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 7월까지 14개월 동안 9차례 연속 동결하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왔다.

다만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금리인상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나온다.

실제 한은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36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말 1700조원을 돌파한 이후로

도 지속해서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오며 매 분기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병목 등이 심화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지난해 공공서비스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3%대 초반으로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2%대 중반으로 상승했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해 2%를 상당폭 웃돌다가 점차 낮아져 내년 중 연간으로 2%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은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故이재명 중사 부모 만난 文 대통령 “인사 드리는 게 도리” /사진 뉴시스
▲김 총리 “한국, 한때 원조 받던 나라...이제는 개발협력 책임져야”

▲심상정 “대통령되는 즉시 전면전”...성폭력 근절 공약 발표
▲이준석, 미 하원 방한단 만나 “중전선 연성급하게 진행 말아야”



▲김종인, ‘윤석열 최후통첩설’ 보도에 “주접 떨어났는데...잘됐다” /사진 뉴시스
▲통일부, 북한 영변 핵활동 정황에 “비핵화 합의정신 준수해야”